



글 강지남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본 자료 발표자 마리아 플로로_아메리칸대 경제학과 교수
 이토 켄_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김영옥_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한스 로프그렌_전 세계은행 선임경제학자
 마틴 시코비츠_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윤자영_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
 계봉오_국민대 사회학과 부교수
디자인 케이트 스몰, 최정미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리뷰 2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GDP의 5%에 육박”

돌봄경제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

본 센터는 6월 2~4일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주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위기 실태를 고찰하며, 돌봄경제 육성 및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노벨경제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낸시 폴브레 미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와 국내외 돌봄 현장의 주역들이 함께 나누는 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미 아메리칸대학교의 [돌봄노동과 경제\(The Care Work and the Economy, 이하 CWE\)](#) 프로젝트는 본 센터와 함께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주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돌봄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거시경제 정책에 돌봄 문제를 포함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 책임연구자 마리아 플로로 아메리칸대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에서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¹고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설명합니다.

휴렛재단(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의 후원으로 2017년 시작된 CWE 프로젝트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연구자들과 함께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전합니다.

¹ 마리아 플로로,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6월 3일 축사에서

엄마의 '잃어버린 연봉', 4000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돌봄경제란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². 그런데 많은 경우 이는 보육교사나 요양간호사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돌봄 일자리'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비(非)시장, 즉 가족과 공동체가 담당하는 무급의 돌봄노동 또한 돌봄경제의 중요 부분입니다. 무급 돌봄노동은 현재 GDP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CWE 프로젝트 참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³.

첫째,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현재 세대를 유지하는 일, 즉 무급 돌봄노동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급 돌봄노동 제공자는 평생 소득의 상실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이 불이익은 개인이 치르지만, 그 혜택은 기업과 국민 전체가 함께 누립니다. 셋째, 정부의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정책은 시간 비용을 간과해, 이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가 최저임금⁴을 적용해 평가한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남성은 연간 12조7000억~14조3000억 원, 여성은 37조9000억~41조9000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무급 돌봄노동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가 남성은 연간 583만~657만 원, 여성은 연간 1681만~1858만 원입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선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연 3539만~41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 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

² 윤자영, '비시장 노동의 가치 평가와 돌봄경제',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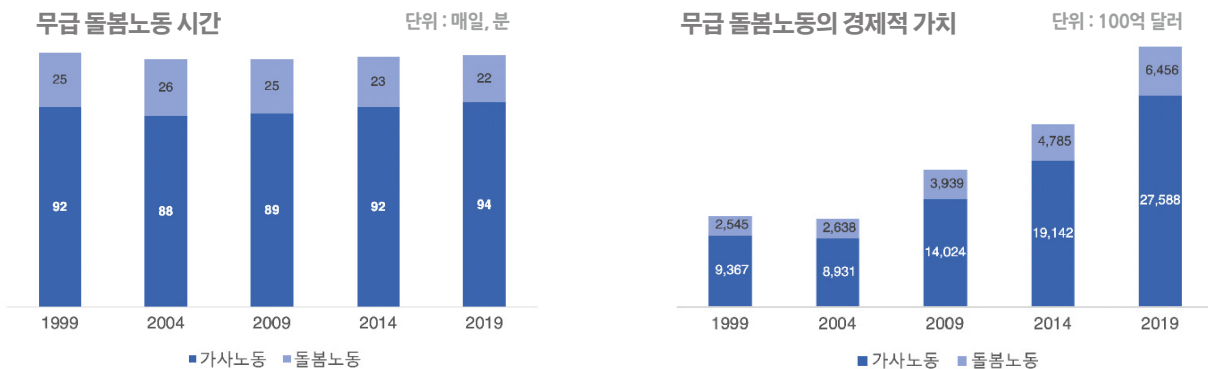
³ 윤자영, 위

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적용

2019년 한국 내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GDP 대비 4.3%에서 4.9%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건·교육·사회보호 부문 지출의 20.52~23.78%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이 없다면 정부가 20.52~23.78%에 해당하는 지출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돌봄의 사회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무급 돌봄노동 시간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대체임금률과 인구수 증가로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그래프1 참조). 윤 교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아닌, 돌봄 정책에 유급 및 무급 돌봄노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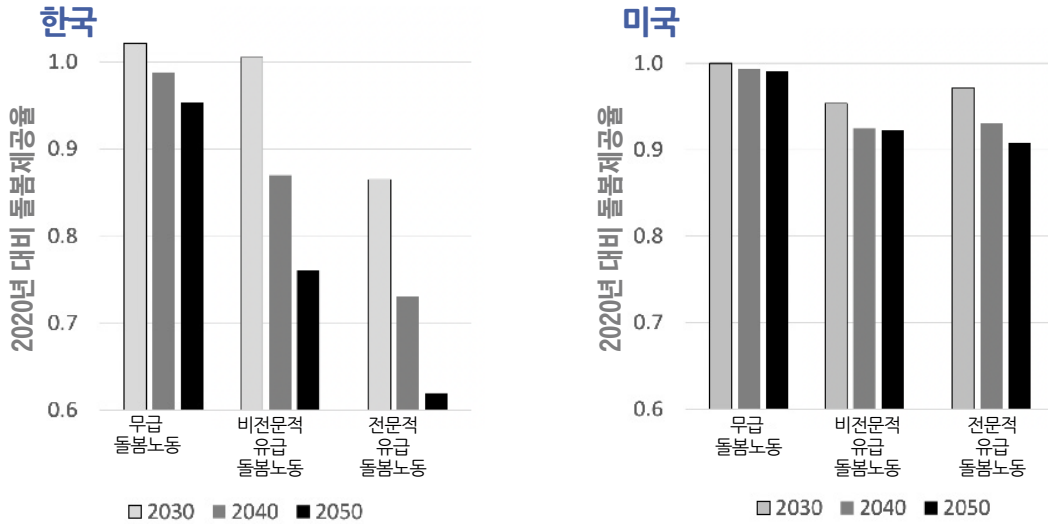
<그래프1> 무급 돌봄노동 시간 및 경제적 가치



출처 : 윤자영, '비시장 노동의 가치 평가와 돌봄경제',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전환>

〈그래프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제공을 변화 추이

출처: 계봉오 & 그레첸 도너후, '한국과 미국의 인구학적 변화 및 돌봄 지원',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전환〉



이대로라면 노인은 많은데
돌봄 사람 없어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부교수

⑦ Care Support Ratio, 인구 중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의 비율

일관된 돌봄정책이 나은 미래 가져와

무급 돌봄노동은 대체로 여성이 떠안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은 결혼 및 출산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급속한 경제성장, 반(反) 인구성장 정책, 피임약의 등장 등으로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더욱 많은 연구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문화, 매우 불평등한 가정 내 돌봄노동의 분배에 근본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래 사회의 돌봄은 어떻게 될까요? 돌봄 아이가 드물어지므로 돌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될까요?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부교수는 우선 누가 현재 한국의 무급 및 유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지를 짚었습니다.

우선 무급 돌봄노동의 제공은 20세부터 증가해 높게 유지되다 60세 이후 감소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무급 돌봄노동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비전문적 유급 돌봄노동 제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60대 여성에 집중돼 있고, 남성은 거의 유급 돌봄노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둘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2050년 상황을 예측해보면, 한국의 돌봄제공율은 ⑦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합니다(그래프2 참조). 특히 유급 돌봄노동에서 그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합니다. 낮은 출산율은 단기적으로는 돌봄제공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돌봄 아이들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돌봄제공율을 낮춥니다. 계 교수는 “분명 한국은 돌봄 제공에서 거대한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의 제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돌봄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또 돌봄 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스 로프그렌 전 세계은행 선임경제학자와 마틴 시코비츠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돌봄 지출을 늘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편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아동 및 노인 돌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상당한 비중의 돌봄노동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임금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면 여성이 가사일보다 시장에서의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따라서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한편 정부의 돌봄 지출 증가가 GDP를 1.8% 가량 상승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결과도 도출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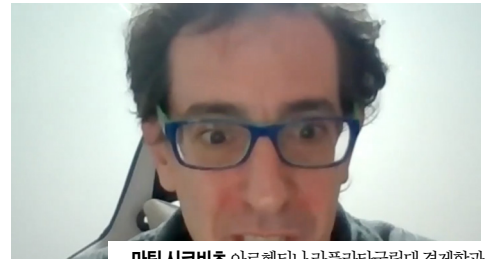
따라서 두 학자는 “돌봄 지출을 늘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부 정책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돌봄 지출을 늘리면 돌봄을 책임져온 각 가구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각 여성이 교육 받은 바에 맞는 일에 종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남녀 임금격차 해소는 여성의 소득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⑧ 한스 로프그렌 & 마틴 시코비츠, '한국의 아동 및 노인 돌봄: 젠더, 돌봄 중심의 측정가능한 일반 균형 모델을 사용한 정책 분석', '한국과 미국의 인구학적 변화 및 돌봄 지원',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전환>

돌봄 투자 늘리고 남녀 임금격차 해소해야



한스 로프그렌 전 세계은행 선임경제학자



마틴 시코비츠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두 학자는 “정부는 일관된 기조 하에 정책 패키지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정부의 돌봄 지출이 늘지 않는 가운데 남녀 임금격차만 줄어들면, 여성의 유급노동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 부족이 발생하는 한편 저출산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역시 ILO 보고서(2018)를 통해 정부의 돌봄정책 지출 규모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GDP 대비 돌봄재정지출 비중이 8%에 이르는 덴마크, 스웨덴의 유자녀 여성고용률이 70% 이상인 반면, 돌봄재정지출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유자녀 여성고용률이 낮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돌봄재정지출 비중은 2% 수준으로 41개국 중 하위 9위이고, 2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55% 수준으로 중하위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리뷰 목차

- 1 '왜 돌봄경제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의 제언
- 2 돌봄경제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
- 3 돌봄경제와 젠더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 4 한국 사회의 돌봄위기 현실
- 5 돌봄 현장의 목소리

“기회의 창문은 크지도, 오래 열려 있지도 않을 것”

플로로 교수는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돌봄노동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라며 “젠더 평등과 돌봄경제, 돌봄사회에 대한 혁신적 비전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주문했습니다④.

첫째, 국가의 포괄적인 돌봄 정책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해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을 증진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창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가 더 큰 평등,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 정책의 효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돌봄경제에 대한 고려 없는 경제성장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오히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열어줬습니다⑤. 하지만 이 새로운 창문은 크지도, 오래 열려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할 때입니다⑥. ㉔

④
마리아 플로로, 위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⑤
이토 팽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6월 3일 맺음말에서

⑥
이토 팽, 위



이토 팽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본 브리프는 2021년 6월 2~4일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중 첫째 날 세션2 '돌봄과 국가경제성장: 돌봄경제의 역할 및 둘째 날 폐회식을 본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본 브리프의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